

#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BRIEFING

Vol. 72

2014\_May

발행처 · 대전발전재단연구원 | 발행일 · 2014. 6. 1  
발행인 · 대전발전재단연구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85(선화동 287-2)  
홈페이지 · www.djdi.re.kr  
전화 · 042-530-3534 | 팩스 · 042-530-3528  
제작 · (주)인커뮤케이션즈

CONTENTS    공원안전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 연구원 행사소식 > 경제동향

## 66    공원안전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99

이형복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에도 범죄예방 설계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효하여서 신규공원 조성계획 시 범죄예방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 5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2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설치·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차원 높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안전한 공원환경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CPTED를 적용한 공원 안전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검토와 국내 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안전한 도시공원조성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CPTED 개념과 법·제도 및 해외사례

#### 01 CPTED의 원리

CPTED의 원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뉴만의 방어공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Moffat에 의하면 CPTED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정리해 본다면 접근통제 및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라는 3가지의 기본전략과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라는 2가지 부가전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 표1. CPTED의 5가지 원리

CPTED의 원리	내용	
기본 원리	1.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자인, 장소(환경을 구성하는 요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함.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위의 노출을 증대시킴.
	3. 영역성 (Territoriality)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함.
부가 원리	4. 활성성 증대 (Activity Support)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02 우리나라 CPTED 관련 법·제도

2005년 3월 경찰청은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CPTED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2월 경찰과학연구소(KIPS) 등 학술행사를 통해서 관련된 KS규격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학계에서도 증가되는 CPTED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해 기반규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거시적 방향과 지침이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 및 개발되고 있어 상호 충돌하거나 예산과 노력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통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년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8년 12월 18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기반표준 표준번호 KS A 8800을 제정하였다. CPTED의 규격을 시스템 표준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여 KS인증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관련법의 제·개정시 이를 반영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적측면에서 공원에 CPTED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에도 범죄예방 설계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효하여, 신규공원 조성계획 시 범죄예방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었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 5가지를 제시하였고,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2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설치·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개정안, 2012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원계획 시 식재의 수목이나 시설물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의자 등 휴게시설의 경우는 사회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경계부분은 투시형 헴스를 사용하고, 조명의 경우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하여 사람의 얼굴 행동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울타리의 형태, 가로등 간격, 포장의 재질, 수목의 높이 등의 세세한 규정없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부 내용이 지적을 받고 있다.

• **서울시의 CPTED** : 서울시 근린공원의 안전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공원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수전전압, 공원 등주 및 등기구, 등기구 높이, 전선로 배선, 광원 및 안정기, 관로포설, 등주의 기초, 접지, 전선의 접속, 점, 소등스위치, 보호기기, 분전함 안전기 설치 높이, 조도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등기구의 높이, 광원이나 조도기준의 경우는 CPTED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이며, 등기구의 높이는 3.5m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원의 화장실, 휴식공간,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 밝기에 대한 조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벤치나 시설물, 수목의 높이에 따라 조명등의 높이의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

비촉진(뉴타운)사업지침에서는 공원시설 계획시 조경이나 녹지가 자연감시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야선 확보를 위해 수고 2m이상인 교목식재는 지표면으로부터 1.5m~1.8m부터 여분의 나뭇가지와 잎은 정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벤치 및 조형물의 경우 가로등 아래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도록 하여 사전범죄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즉 야간이용률이 떨어지는 공원, 광장, 놀이터는 사용시간대를 정하여 이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03 선진국 공원의 CPTED 적용사례 : 영국

2004년 영국 부총리실에서 작성한 범죄예방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만이 목적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 안전한 공간,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요소로 ①접근과 동선, ②구조, ③감시, ④주인의식, ⑤물리적 보호, ⑥활동성, ⑦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했는데, 이 중 공원은 Sunderland 주의 Mowbray park가 그 분석 대상이었다. Mowbray park를 대상으로 7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보수공사 이후 같은 공원에서 범죄 발생이 급격히 줄어든 것(공원의 야간 이용금지, 동선 최소화하는 등 개선한 결과, 범죄발생건수가 월 30~50건에서 10건으로 감소)를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 표2 Mowbray park, Sunderland의 CPTED 전략

	<p><b>접근과 동선</b></p> <p>공원의야간이용 금지 동선 최소화</p>		<p><b>감시</b></p> <p>어린이 놀이터를 공원 가장자리 관리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 자연 감시 강화</p>		<p><b>감시</b></p> <p>야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 야간 침입자의 행동을 감지</p>
	<p><b>주인의식</b></p> <p>Pride를 심어줌으로써 공동체와 영역에 대한 책임감 강화</p>		<p><b>물리적 보호</b></p> <p>Gate나 Grilles를 예술작품처럼 만들면 부정적 영향이 줄고 긍정적 영향이 증가</p>		<p><b>관리와 유지·보수</b></p> <p>공원 중간에 위치한 공원 관리사무소는 반사회적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p>

자료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 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 III. 대전광역시 공원의 CPTED 적용방안

### 01 대전광역시 공원안전을 위한 CPTED 적용 기본방향

#### ① 기본방향 : 공원의 활용성 향상에 최우선 목표

잘 정비된 공원은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여유있는 휴식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휴식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로, 주차장, 오솔길의 기점, 화장실, 활동이 집중된 지역과 고립된 지역 등에 중점을 둔 설계와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원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공원이 도시민의 심신 휴식과 건강, 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 보다 안전한 공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공원에서 CPTED 적용에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CPTED 적용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거꾸로 CPTED의 적용을 통한 안전한 공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원의 활용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 ② CPTED 원리에 충실한 공원계획 및 관리

공원과 산책로, 공개된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CPTED 개념과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지역 중 하나이다. 안전한 공원은 먼저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CPTED기법을 적용하여 공간 계획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CPTED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된 후 CPTED를 적용하려 하면 시설공사비는 물론이고 CCTV 등 보조적인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며, 당초 설계 의도대로 공원이 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의 확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CPTED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활용이 필요하다.

### ③ CPTED 설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IT 기술 도입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통합적 U-방범시스템을 공원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GPS 시스템, 범죄인지 및 자동추적기능을 가진 CCTV, 비상벨 등을 이용한 위험경보시스템, 센서 및 스피커를 부착한 가로등주 등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위험상황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공원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다. CPTED 개념에 기반한 공원의 계획 및 설계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을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02 대전시 공원의 CPTED 디자인가이드라인(안)

공원과 산책로, 공개된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CPTED 개념과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지역 중 하나이다. 공원에서 CPTED가이드라인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역의 계획 및 설계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표3 공원에서 CPTED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	가이드라인 기본구상	예시
자연적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책로에는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등과 보행자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불안감을 감소</li> <li>공원 관리실에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입구를 설치하고 야간까지 이용되는 공원이라면 밝은 조명을 비추도록 해야 함.</li> <li>공원의 통로나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해야 함.</li> <li>공원의 조경은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설치하고 안쪽으로 교목을 설치하여 공원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됨.</li> <li>수목은 형태와 크기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 숨을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함.</li> <li>수목은 잘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시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li> <li>공원이나 운동장은 도로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함.</li> <li>작은 공원이나 큰 공원의 가정자리는 도로에서 보이도록 설계</li> <li>산책로 주변은 시야선이 감소되지 않거나 함정지역을 만들지 않도록 다른 형태의 나무와 수목을 식재하여 식물군간 경계를 이루도록 함.</li> <li>어린이 지역과 공중 화장실은 이러한 지역의 관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역의 근처에 위치시킴.</li> <li>CCTV는 감시인지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 유도</li> </ul>	    

분류	가이드라인 기본구상	예시
자연적 접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고, 충분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솔길과 숲 가장자리는 최소한 3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li> <li>• 오솔길과 사적 공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사적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원이나 오솔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개 시간과 공원구조 등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토록 함.</li> <li>• 잘 배치된 입구 표지판과 출입문은 공원이나 지역 안으로 접근 하는 것을 통제</li> </ul>	
영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터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족 단위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li> <li>• 주차장과 다른 시설사이의 통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함.</li> <li>• 사람이 모이는 지점이나 접근하는 지점에는 공원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표시한 표지판을 세워 사용자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li> <li>• 오솔길에는 표지판을 세워 오솔길명과 다중이용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li> <li>• 처음 방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림활용도 가능</li> </ul>	
활용성 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과 휴게시설의 활력이 떨어진 곳은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li> <li>•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매일 특별한 시간에 노인들의 산책 그룹을 만들거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소풍장소 등으로 활용</li> </ul>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식재들의 자연적인 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li> <li>• 산책로나 오솔길주변의 나무와 관목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각지대나 은폐할 수 있는 장소는 제거</li> <li>•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는 내구성이 강한 쓰레기통을 적절히 설치하여 공원관리가 쉽게 되도록 함.</li> <li>• 쓰레기와 낙서와 조경을 망치는 물건은 즉시 제거</li> <li>• 공원벤치는 부랑자 등이 장기간 잠을 자는 장소로 사용될 수 없도록 분리대가 있는 벤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 V. 결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공원에 범죄예방 설계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효하여, 신규공원 조성 계획 시 범죄예방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시공원을 계획, 조성,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 5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2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설치·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고 있다.

해외선진국에서 도시계획이나 대단위 상업지구, 주거지구 설계에 적용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CPTED가 최근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있어서도 더욱이 공원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경찰과 같은 치안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법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인 방법시스템 구축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시도 공원안전을 위해서는 CPTED도입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66 대전형 정부3.0 성공모델 찾는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개최 99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치구와 공사·참여하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3.0 추진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정부 3.0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응모한 우수사업 7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9건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최종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열띤 경쟁을 통해 최우수상은 시 교통정책과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사례가,

우수상에는 과학특구과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고급인력정보 제공 및 인력지원' 사례가, 그리고 장려상에는 서구 교통과의 '이웃과 공유하는 주차문화 창조'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사례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시파업이나 우천 시에 대중교통 수요변화와 도로상황 등을 종합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j](#)

## 66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Working Mom도 아내가 필요해!' 개최 99



맞벌이 부부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이들을 부모가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과 학교정책, 그리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시간은 크게 변동이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주혜진)는 '부부의 날' 기념하여 13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도룡동에서 맞벌이 부부와 정책전문가, 아동학 및 정신건강전문의 등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워킹맘은 아내가 필요해'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이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수준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족 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고,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유발이 힘겨운 점이라는 데 크게 공감했다. 부부간 공평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이 행복한 결혼생활, 즉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기업과 학교라는 네 주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

## 2014년 제1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센터장 박노동)는 대전시 사회적자본 기반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을 23일(금) 오후 3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혁신을 중점으로 한 ‘과학기술과 사회적 경제, 어떻게 만날 것인가?’(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과 지역기반 전환 실험’(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풀뿌리사람들, 시민단체,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단,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서는 2014년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 ‘대전사회적자본 포럼’을 통해 대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j](#)

## 재정건전화 및 예산효율화 포럼 개최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은 27일(화),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재정건전화 및 예산효율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호원대학교 강태구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만 우송대학교 교수, 신희권 충남대학교 교수, 원구환 한남대학교 교수,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여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j](#)

##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제4차 전문가 콜로키움



대전발전연구원은 14일(수),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은퇴과학기술인 활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 콜로키움에는 은퇴과학자 활용방안 수립의 방향성 및 은퇴과학자 활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자문과, 은퇴과학자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화 방안 등 은퇴과학기술인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j](#)

# 경제 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수입을 제외한 생산, 소비, 고용, 건설 등 대부분 실물지표가 양호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는 고용상황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지만, 생산과 소비, 건설,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 등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모두 활발한 가운데 물가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4년 들어 소폭 씩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반등하였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산업활동의 경우 2월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였고, 1/4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산업활동이 개선세를 보임.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으며,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임.

아울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엔화약세 등 대외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황임.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대내외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국제공조 강화와 대외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병행하고, 이와 함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경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4년 들어서 소폭씩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반등하였음.

## 금융



2014년 4월, 국내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증순 이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환율도 하락하였음.

## 건설



2014년 3월,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전월에 이어 증가하였고,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개월째 증가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3개월째 감소하였음.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감소하여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

## 물가



2014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축산물,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에서 상승하였으나 농산물, 내구재와 석유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0%를 기록하였음.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2%수준으로 지난달의 1.0%수준보다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물가는 매우 안정된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소비



2014년 3월, 전월대비 유류를 제외한 에너지소비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소매점판매액과 자동차 등록, 농수산물시장 거래량이 증가하여 지난달의 위축된 모습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가스 및 연탄 사용량, 노은농수산물시장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고려 품목 대부분이 증가하여 지난달의 위축된 모습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임. 향후 소매판매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2014년 3월,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섬유류, 광산물, 기계류, 철강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기전자 제품, 생활용품,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3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무역수지는 전년도 2월부터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4년 3월은 흑자폭이 전월보다 전월에 이어 대폭 확대되었음.

## 고용



2014년 3월,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도 하락하여 최근 4개월째 악화된 모습에서 다소 개선되었음. 전년동월대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가 7개월째 증가한 반면, 실업자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함. 취업자가 대폭 증가했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상승하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임.

## 생산



2014년 3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전월의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고,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전월의 부진에서 다소 활기를 찾는 모습임. 향후 생산은 수출 호조 등 긍정적 요인과 휴대폰 영업정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하여 나타날 전망됨.